

러시아-그루지야 분쟁과 국제관계

김 영 술

전남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

< 목 차 >

- | | |
|---------------------|----------|
| I. 서론 | V. 결론 |
| II. 러시아-그루지야 분쟁의 역사 | 참고문헌 |
| III. 분쟁의 원인과 결과 | Abstract |
| IV. 러시아와 국제관계 | |

Key words(중심용어): 러시아-그루지야 분쟁(Russia-Georgia Conflict), 유라시아(Eurasia), 신 거대 게임(New Great Game), 범유라시아 안보체제(Trans-Eurasian Security System), 유라시아주의(Eurasianism)

국 문 요 약

이 글은 러시아-그루지야 분쟁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세력관계 및 지정학적 재편 속에 형성되는 국제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2008년 8월 러시아-그루지야 분쟁은 지금까지 유라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었던 세력 판도를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미국, 러시아-유럽연합, 러시아-나토, 그리고 러시아-CIS와의 국제역학 관계는 대립과 경쟁과 협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이 글은 러시아-그루지야 분쟁의 원인, 역사, 그리고 결과를 살펴보고, 유라시아 지역이 영향력을 키우려는 미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다시 옛 소련 시절의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러시아 간에 새로운 신 거대 게임의 장이 되고 있음을 검토하였다. 특히 러시아-그루지야 분쟁을 통해 나타나는 국제관계에서 미국은 글로벌 헤게모니의 전제조건이 유라시아 지배라고 보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글은 유라시아 지역에 새로운 세계안보체제가 요청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 글은 러시아의 유라시아에서 역할은 단일 패권 국가의 출현 가능성을 배제하고 유라시아의 지정학적 다원성을 공고히 하는 것이며, 이러한 길이 러시아의 민족통합과 지역통합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방안임을 시사하고 있다.

I. 서론

소련의 붕괴는 유라시아 대륙의 세력관계 및 지정학적 재편을 가져온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번 2008년 8월의 러시아-그루지야 분쟁은 지금까지 유라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었던 세력 판도를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러시아-그루지야 분쟁으로 미·러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었으며, 심지어는 이러한 상황이 신냉전의 위협이라는 시각도 있었다(*Интерфакс* 22 сентября, 2008). 그러나 푸틴총리는 러시아와 서방사이에 어떠한 냉전도 존재하지 않으며, 지정학적인 다른 의견으로 치부하였다. 그는 러시아가 제국주의 자만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구소련 국가의 주권을 침해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하였다(*ИТАР-ТАСС* 11 сентября, 2008). 오히려 그는 러시아가 서방국가들과 관계의 정상화가 필요하며, 새로운 안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을 강조하며, 코소보에서는 스스로 결정할 국가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그루지야에 대해서는 영토를 보전하는 이중 기준을 심하게 비판하였다. 이는 코소보의 선례 후에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아의 독립 승인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또한 러시아-그루지야 분쟁 후 서방에서는 러시아 경제에 대한 서방의 특별 제재에 대한 언급도 논의되었지만 오늘날 글로벌 경제의 조건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는 러시아에 대해 강경책을 취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동안 부시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통해 러시아의 제국주의 회귀를 막으면서 독립국가연합(CIS) 일부 국가들을 서방에 가깝게 끌어들이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러시아의 힘이 강해지면서 양국은 동유럽 미사일 방어(MD)문제, 코소보 독립, 이란 핵 문제 등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하였다.

미국은 그루지야에 군사지원과 2008년 7월 8일에 체코에 레이더기지 설치를 합의하였고, 2008년 8월 14일에 미국의 MD 체제 구축 차원에서 폴란드에 10기의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을 배치하기로 합의하였다.¹⁾ 미국의 MD 기지 설치로 유럽에 새로운 군비경쟁이 촉발되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2000년 군사 독트린을 개정하여 핵무기 보유국의 동맹국에 대해서는 핵무기 사용할 수 있는 분쟁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핵보유국 미국과 군사협력을 약속한 폴란드에 핵 공격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하였다.²⁾ 또한 러시아는 유럽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러시아 서부 칼리닌그라드 주에 이스칸데르(Искандер) 미사일 기지를 건설할 수도 있으며, 동유럽 MD 체제에 대항해 전파방해 기술을 동원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칼루가 주의 코젤스크(Козельск)에 1만 km 범위의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의 RS-18 스틸 연대를 포함하여 미사일 사단 소속 3개 연대만 해체하고, 사단은 유지하기로 하였다(*РИА Новости* 5 ноября, 2008).

반면에 러시아는 그루지야와 우크라이나에 2003년 장미혁명, 2004년 오렌지혁명으로 친 서방

1) 2009년 9월 17일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폴란드와 체코에 미사일방어(MD) 기지를 구축하려던 계획을 전면 철회하였다.

2) 러시아의 핵 정책의 기초는 러시아 연방 군사 독트린에 따라 변화가 있어왔다. 러시아 군사 독트린은 소련 붕괴 후 그동안 러시아에는 1993년, 1997년, 그리고 푸틴에 의해 2000년에 채택되었다. 2000년에 군사 독트린과 더불어 새로운 '러시아 국가 안보 개념'이 채택되었다(*rosbalt.ru*, 2 Август, 2007).

정부가 들어선 뒤 지정학적 측면에서 고립되는 경향이였다. 그리고 소련이 붕괴 났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자신의 세력권으로 간주하는 CIS 소속 국가들에게 미국이 진출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정치·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게 된 러시아는 CIS 국가들과의 관계를 중요한 대외정책으로 삼았다. 강경 외교정책을 선언한 푸틴은 러시아가 10년간 혼란기를 거쳐 제 자리를 찾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으며, 러시아는 미국의 카스피해 진출, NATO 동진, CIS 일부 국가들의 친미 성향 등을 두고 CIS 내에서 미국과의 대결이 첨예화되었다. 러시아는 냉전 시절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 초강대국이란 자존심을 버리지 않았다.

러시아와 그루지야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두 자치공화국 지도자들이 서방이 내 놓은 평화원칙에 합의하였지만, 러시아-그루지야 분쟁으로 러시아는 미국, 그루지야, 우크라이나, 발트 3국, 동유럽 등 여러 국가들과 관계가 첨예화되었다. 더욱이 2008년 10월 9일에 비슈케크에서 CIS 지역 국가들의 외교 장관 회담에서 그루지야에 대해 독립국가연합 회원 자격을 중지하는 기술적인 결정과 압하지야에서 평화 유지를 위한 집단 활동을 중지하는 안을 채택했다. 그루지야는 2009년 8월 이후 독립국가연합 회원으로부터 중지되었다(*Известия* 9 октября, 2008).

이러한 상황 속에서 러시아-그루지야 분쟁을 통한 세력관계 및 지정학적 재편 속에 형성되는 국제 역학 관계는 새로운 거대한 게임을 하는 듯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논문에서는 러시아 입장에서 먼저, 러시아-그루지야 분쟁의 원인과 새로운 국제질서, 그리고 러시아-그루지야 분쟁의 역사와 최근 분쟁의 결과에 대해 전반적인 고찰을 하였다. 이어 러시아-그루지야 분쟁으로 인한 러시아-미국, 러시아-유럽연합, NATO, 그리고 CIS 국가들 간의 국제관계를 파악하고, 러시아 측의 새로운 대외 5원칙과 유라시아 안보 틀의 방안을 살펴보았다.

II. 러시아-그루지야 분쟁의 역사

남오세티아는 승인된 공화국이 아니며, 실제로는 자치공화국이며 법적으로는 그루지야에 속한다.³⁾ 남오세티아는 러시아-북오세티아 공화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면적은 3천 9백 km²이며 남오세티아 인구는 오세티아인, 그루지야인, 그리고 다른 인종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세티아인이 공화국 주민의 약 60%, 그루지야인이 약 25%, 러시아인은 약 2%정도이다. 오세티아는 예카테린 2세 시기인 1774년에 러시아 제국에 복속되었다. 1917년 혁명 이후 오세티아는 북오세티아로 분리되었고 고르스키 공화국(Гор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구성에 포함되었다. 1924년에 이 공화국이 없어지고 북오세티아 자치주가 형성되었다. 남오세티아는 혁명 결과로 독립을 얻게 된 그루지야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1921년 2월 그루지야 정부는 볼셰비키로 돌아섰고, 1922년 4월 20일에 소비에트 권력을 구성하였으며 그루지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에 남오세티아 자치주가 형성되었다. 그루지야와 남오세티아는 페레스트로이카 시작과 함께 민족운동을 강화하였다. 1989년 11월 10일 자치주 민족의회에서 그루지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구성 내에서 자치 공

3) <http://www.rg.ru>(2008년 8월 30일 검색).

화국으로 전환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그루지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러한 청원을 거부했다.

1989년 11월 23일 츠힌발리에서 그루지야 민족주의 운동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그루지야의 다른 지역에서 약 5만 명이 도착하였다. 도시의 입구가 차단되었고 이틀 동안 오세티아와 그루지야 무장 세력이 충돌하였다. 거기에 소련의 내무부 소속의 군인들이 개입하였다.

1990년 9월 20일에 남오세티아 공화국 선언이 있었고 12월9일에 공화국 최고위원회 선거가 있었다. 12월 11일 그루지야 의회는 선거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남오세티아 자치주를 폐지하기로 선언했다. 그 다음날 츠힌발리와 잠스키 지역에 긴급사태가 선포되었다. 1991년 1월 6일 남오세티아에 그루지야 병력이 투입되고 군사 활동이 강화되고 자치주는 봉쇄되었다. 1991-1992년 동안 이 자치지역에 잔인한 무력 충돌이 계속되었다. 그루지야의 경찰력은 츠힌발리 주변을 전략적으로 통제하였으며 수많은 피해자와 사망자가 발생했다. 오세티아 측에 의하면, 1989-1992년 동안 무력 충돌에 의해 3천 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4만 명 이상이 난민이 되었으며, 거의 300명이 실종되고 100개가 넘는 오세티아 마을이 불타게 되었다. 그루지야는 이 시기에 오세티아인들의 격렬한 저항으로 자치주의 완전한 통제가 불가능했다.⁴⁾

군사 활동은 엘친 러시아 대통령과 그루지야 국가위원회 대표 세바르드나제 간의 다가무스키(Dagomysski) 협정 체결 이후 중단되었다. 다가무스키 협정으로 무력을 중지하고 갈등을 정상화하기 위한 중재 통제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여기에는 그루지야, 남오세티아, 러시아, 별도로 북오세티아가 포함되었다. 1992년 7월14일에 분쟁 지역에 평화 유지군 3개 대대(러시아, 그루지야와 오세티아로 구성)가 주둔하게 되었으며, 남오세티아는 사실상 독립이 되었다. 1992년 1월 19일에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가 진행되었으며 이곳 주민의 98% 이상이 찬성을 하였다. 1992년 5월 29일 공화국의 최고위원회는 독립 국가에 대한 문서를 채택하였다. 남오세티아는 자신들의 헌법, 국가 상징과 의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그루지야 당국은 그루지야의 츠힌발리를 지역의 행정단위로 취급하였다. 2003년 그루지야의 대통령이 세바르드나제에서 사카쉬빌리로 교체되었다. 그의 선거운동에서 주요 주제는 이 지역이 그루지야의 구성으로 복귀하는 것이었다. 남오세티아는 그루지야와 모든 관계를 거부하였고, 이 지역에는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더욱이 오세티아 주민들은 1989-1991년 대량 학살에 대해 그루지야에게 공식적으로 보상 지불요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 2004년 6월 남오세티아는 러시아 연방 공화국에 가입 허용 제안을 채택하였다. 최근 몇 년 동안 남오세티아 주민의 약 90%가 러시아 시민권을 받았다.

한편, 압하지야는 흑해의 남동쪽의 자카프카즈의 서쪽 부분의 비인정 국가로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⁵⁾ 법적으로는 그루지야에 속하며 공화국의 독립은 인정되지 않았다. 19세기에 압하지야 공국은 오스만 제국의 보호아래 있었다. 18세기에도 터키의 압박 하에 상당부분의 지역이 이슬람에 있었다. 따라서 공국은 반터키 반란이 자주 발생하였고, 압하지야 공작들은 러시아의 보호를 찾았다. 1808년 터키에 대한 음모의 결과로 압하지야 공작이 사망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러시아와 가까워졌다. 1909년 공작의 아들이 반러시아 폭동을 진압하였으며, 러시아 정부에 지원

4) <http://www.rg.ru>(2008년 8월 30일 검색).

5) <http://ru.wikipedia.org/wiki/>(2008년 8월 30일 검색).

을 호소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고, 1810년 2월 17일에 러시아 제국의 알렉산더 1세의 러시아제국에 압하지야 공국이 통합되는 선언문이 발표되었다.

1864년까지 공국은 사실상 자치국으로 있었으나 1864년에 수후미 군사부로 되었다. 압하지야 영토에 강제적인 기독교 부활로 봉기가 일어났으며 반러시아 정서로 바뀌었다. 1866년에 리넨스키 반란과 1877-1878년 러시아-터키 전쟁의 결과로 압하지야인 상당부분(일부는 자발적으로, 일부는 강제로)이 러시아제국으로 떠났다. 1877년 압하지야 주민은 거의 절반으로 축소되었다. 혁명시기에서 오늘날까지 압하지야 영토는 러시아제국의 각종 행정-영토 간에 구분이 되어 있었다. 1917년 2월 혁명 후에 압하지야는 멘셰비키 수중에 있게 되었으며 1917년 5월에 볼셰비키 지구위원회가 창립되었다. 1918년 여름 압하지야는 그루지야에 포함되었다. 이 과정에 압하지야 인민위원회를 해산하기 위해 압하지야 영토에 그루지야 병력을 투입하였다. 1921년 3월에 압하지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이때는 이미 소련시기로 그해 12월에 동맹 협정에 따라 압하지야는 그루지야에 포함되었다. 1931년 그루지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구성에 압하지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만들어졌다.

그루지야 공화국 출신 지도자인 스탈린 시기에 압하지야 주민들에게 심한 차별정책이 이루어졌다. 압하지야 알파벳의 기준이 그루지야 알파벳으로 대체되었다. 압하지야 학교에서는 그루지야어로 교육되었고, 압하지야의 많은 이름이 바뀌어졌다. 1960-1980년 그루지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경제 정책으로 압하지야 공화국은 그루지야 노동력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런 결과로 1980년까지 그루지야인이 자치공화국 인구의 약 45%를 차지했다. 압하지야인은 지속적으로 ‘그루지야인-적’의 이미지를 형성하였다. 1957년, 1967년, 1977년에 압하지야 민족 지식인 대표들이 소련 지도자에 그루지야 공화국에서 탈퇴하고 러시아에 가입하거나 압하지야 독자 공화국을 형성하는 요청을 하였다. 1977년 말에 소위 ‘편지 130’이라고 불리는 것을 연방 당국에 보냈다. 이 편지에는 그루지야 구성에서 압하지야 공화국의 탈퇴문제가 제기되어 있었다. 압하지야 문제는 페레스트로이카 시기에 심해졌으며, 그루지야화로 인해 위협을 인식하고, 압하지야 당국은 그루지야로부터 분리하여 소련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

1989년 3월부터 1992년 7월까지 그루지야에 압하지야 가입에 대한 합법성 논쟁이 있었다. 1989년 4월 9일 트빌리시에 소련 군대의 낙하산 연대가 독립을 요구하는 집회를 해산시켰다. 집회해산 과정에서 20명이 사망했고 그중에 18명은 여성이었다. 1989년 7월 15-18일에 수후미에서 그루지야인과 압하지야 사이에 첫 무장 충돌이 있었다. 7월의 약 2주 동안 비극적으로 12명이 사망하였다. 1992년 7월에 압하지야 최고위원회의가 1978년의 압하지야 헌법수정과 1921년 헌법안의 부활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그루지야 구성에 압하지야 가입의 법적인 토대의 취소였다. 최고위원회는 압하지야와 그루지야의 두 편으로 분리되었다. 자치공화국의 권력기관으로부터 그루지야인의 대량해고가 시작되었다. 압하지야 근위대가 창설되었고 압하지야 영토에 그루지야의 국가위원회의 군대가 투입됨에 따라 강력한 무장 충돌이 시작되었다. 전쟁은 14개월 동안 계속되었고 구소련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대립의 하나였다.

1992-1993년 사이의 무력 충돌로 4천 명의 그루지야인이 생명을 잃었고(추가로 1천 명은 행방 불명) 압하지야인도 4천 명의 생명을 잃었다. 공화국의 영토에 엄청난 지뢰가 남아있으며, 이로

인해 약 7백여 명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사망하였다. 약 25만 명의 그루지야인(거의 자치공화국의 절반인구)이 압하지야로부터 강제로 떠나갔으며 이중에 5만 명은 1994-1997년 사이에 귀환하였으나 1998년 긴장으로 다시 3만 명이 떠났다.

Ⅲ. 분쟁의 원인과 결과

1. 분쟁의 원인

냉전 후 미국이 군사적 패권을 확립하면서 미국의 독주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경향과 함께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형태가 나타나면서 국제사회에서 반미 성향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일방적 외교는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가져야 하는 도덕적 리더십을 포기한 채 미국의 단기적 이익에만 집착하는 자국 이기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유현석 2006, 45-46).

이러한 경향은 중앙아시아와 카프카즈의 분쟁 지역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소연방의 붕괴로 인하여 이들 유라시아 지역에 소재한 소수 민족 공화국들의 독립을 성취시킴과 동시에 러시아의 통제권을 약화시키면서 ‘권력공백’ 상태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역내외 국가들 간 첨예한 세력경쟁, 즉 ‘거대 게임’이 재현되는 계기가 되었다. 9.11테러 사태 후 미국이 대테러 전쟁 및 중동지역을 대체 또는 보완하는 에너지 공급을 위한 전진 기지로서 카프카즈와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도모함에 따라서 그러한 현상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고재남 2005, 14).

이처럼 미국, 유럽연합 등과 영향력, 힘(power), 패권(hegemony), 이득(profit)을 둘러싼 경쟁이 재현되고 있으며 일부 학자들은 중앙아시아와 카프카즈 지역의 최근 심화된 이러한 역내외 강국들의 국익과 패권 경쟁을 1830년대에서 1870년대의 상황과 비교하여 신거대게임(New Great Game)이라 정의하고 있다.⁶⁾

이번 러시아-그루지야 분쟁에도 신거대게임으로 유추하여 볼 수 있는 몇 가지 원인이 존재한다. 첫째, 러시아가 이번 분쟁을 통해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자국의 안보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특히 압하지야는 정치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통합성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그루지야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군사적으로는 오차미차(Ochamchira)항, 구다우타(Gudauta) 기지 등 군사적 인프라를 확보하고 NATO의 영향력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흑해 연안 국가에 대한 통제를 확대할 수 있는 곳이다(엄구호 2007, 131).

그리고 사카쉬빌리 대통령은 집권 이후 분리 독립 운동을 벌인 아자리야를 무력 진압으로 그

6) 원래 거대게임이란 용어는 20세기 초 키플링(Rudyard Kipling)의 소설 KIM을 통해 널리 사용되고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신거대게임은 코헨(A. Cohen), 윈로우, 클레베만, 컷버트슨, 에드워즈 등이 지적하였으며 구거대게임과 신거대게임의 차이는 구 거대 게임은 지정학적 패권과 지배를 목적으로 러·영 제국 간에 벌인 경쟁인 반면에, 신거대게임의 참여자와 목표는 매우 다양하며, 명백한 군사력 사용은 억제되며, 더 이상 국제질서는 지나치게 호전적이고 위협적인 무력의 사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거대 게임은 19세기말 제정 러시아가 부동항을 찾아 인도양으로 나가는 길을 놓고 대영제국과 충돌했던 패권 경쟁이다((고재남 2004, 14).

루지야에 복속하였으며, 2년 후엔 고도리 협곡을 접수하였다. 또한 옛 소련 시절부터 주둔해온 러시아군의 철수를 압박하였고, 러시아는 2006년 그루지야 남부 아할칼라이와 남서부 아자리아 자치공화국내 바투미에 약 5천 명의 상주시켰던 병력을 일단 철수하였다.

그러나 NATO는 자신의 존재이유의 근간이었던 소련 및 중동유럽 국가들의 위협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이들 국가들을 대상으로 확대정책을 추구해나감으로써 자신의 새로운 존재이유와 정체성을 모색해나갔다.

1999년 4월에 이루어진 폴란드, 체코, 헝가리의 NATO가입, 그리고 2004년 3월 말에 이루어진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의 NATO가입이 있었다. 유럽 안보에 대한 이러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는 러시아의 안보적 우려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에서는 그루지야와 전쟁을 서방과 카프카즈 패권 경쟁 구도로 보기도 한다. 러시아 대통령의 군사작전 종결 선언으로 일단은 '5일 전쟁'으로 막을 내렸지만 이면에는 신거대 게임이라고 하는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번 전쟁을 통해 러시아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겼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것은 반러시아 성향 국가들의 단합과 이 지역까지 나토의 영향력 확대(미국의 개입여지)를 위한 명분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지역의 영향력 확대를 담보로 러시아는 폴란드, 체코 지역의 나토와 미국의 MD계획을 용인해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는 친 러시아 성향의 남오세티아를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지원함으로써, 반러시아 벨트의 일원이었던 그루지야 영토 내에 확실한 친 러시아 근거지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그루지야,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몰다비아와 함께 반러시아 성향 국가들의 모임인 구암(GUAM)에 탈러시아 친서방정책에 대해 더 이상 방관하고 있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게 되었다. 러시아는 이번 전쟁을 통해 유라시아 지역에서 자신의 목적과 역할을 충분히 해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에너지 자원 문제이다. 그동안 주요 에너지소비 국가들 간의 에너지 자원 개발 및 확보경쟁을 가속화 시켰다. 이러한 에너지 개발 및 자원 확보 경쟁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에너지안보 문제로까지 확대 발전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는 중요한 송유관을 통과하는 민족에 대한 통제력을 완강하게 유지하여 왔다. 러시아는 이 지역에 대한 통제가 러시아의 열강으로서 지위를 유지하는데 결정적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카스피해 에너지 운송 문제의 향배가 미국-유럽연합-나토와 러시아간의 정치적 경쟁의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북 스트림(North Stream), 남 스트림(South Stream), 그리고 블루 스트림(Blue Stream) 러시아 가스관 구상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푸틴 총리는 '북 스트림' 파이프라인 건설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이 가스관은 러시아 가스를 유럽으로 보내는 새 수출 경로로 독일,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덴마크 및 기타 국가가 해당된다. 유럽연합의 가스 수입 전망은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며 2천억^m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에 있는 세계 최대의 가스 매장량은 유럽 가스 수송 시스템과 직접적인 연결을 통해 북 스트림은 수입 가스에 대한 추가 수요의 약 25%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

고 있다. 북 스트림은 그라프스발트(Greifswald) 지역의 독일의 발트해 연안과 러시아의 발트해 연안 브이보르크(Vyborg) 아래를 연결할 수도 있다. 파이프라인의 길이는 약 1천 2백km이며 첫 번째 지선 용량은 연간 275억 m^3 로 2010년에 완성될 예정으로 있다. 2012년까지 두 번째 지선 파이프라인이 건설될 예정이며, 550억 m^3 용량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Правда* 11 сентября, 2008).

더불어 2007년 6월25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흑해경제협력기구(BSEC)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의 국영 가스회사인 가스프롬이 이탈리아 에너지 기업(ENI)과 흑해 해저를 지나는 새 가스관을 건설하기로 합의하였다. 남 스트림(South Stream)으로 명명된 이 가스관은 러시아의 흑해 연안에서 출발해 900km의 흑해 해저를 통과한 뒤 불가리아를 거쳐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로 연결되는 최대 3천 2백km 길이의 파이프라인이다. 전체 사업비는 130억 달러로 예상되고 있다(*Коммерсантъ* 17 сентября, 2008). 남 스트림은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나부코(Nabucco) 가스관에 대항하는 성격이 짙다. 나부코 가스관은 카스피해 가스를 터키,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를 거쳐 오스트리아까지 운반할 예정이지만,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 양국은 나부코 가스관 건설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하지 않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기존에 건설된 터키 경유 블루스트림(Blue Stream) 가스관을 발칸 지역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러시아는 그리스와 러시아 남부-불가리아 부르가스-그리스 알렉산드루폴리스를 잇는 가스관을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상을 벌이고 있다. 모두가 발칸 지역으로의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노선이다.

한편 그루지야 전쟁 발발 이후 아제르바이잔과 카자흐스탄은 그루지야 바투미항을 통한 석유 수출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바쿠-쑤사 라인을 운영하는 영국 석유회사(BP)도 이 송유관을 일시 폐쇄한다고 밝혔다. 대신 러시아의 노보로스스크로 이어지는 러시아 송유관을 통한 수출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파이프라인의 용량을 확대하거나 새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려던 계획도 재검토 압박을 받게 됐다. 그루지야가 갖고 있던 안정적인 에너지 수송 루트로서의 위상이 흔들리면서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투자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쿠-트빌리시-에르주룸(BTE) 가스관이다. 아제르바이잔의 가스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이 가스관의 수송 능력을 현재 연 60억 m^3 에서 2014년까지 연 200억 m^3 까지 늘리려던 계획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유럽연합이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를 유럽으로 수송하기 위해 BTE와 나란히 건설하려던 가스관(연 300억 m^3 운송 규모) 프로젝트도 재검토 대상이 되었다.

러시아를 배제하기 위해 새 송유관과 가스관을 건설했던 서방과 에너지 생산국들이 어쩔 수 없이 러시아 파이프라인에 다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셋째, 신생 러시아가 탄생한 직후 긴급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최대의 외교적 과제가 CIS 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달려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분쟁이 러시아입장에서 보면 CIS 통합을 방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막고자 하였던 의도가 있어 보인다. 푸틴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CIS 내 자국민 보호와 분리주의 방지 등을 강조해 왔다. 그동안 그루지야

와 우크라이나 등 일부 CIS 국가들은 NATO 가입, 미국에 군사 기지 제공 등의 방법으로 반러시아 경향을 보이며 미국과는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따라서 러시아가 이번 기회를 통해 NATO와 유럽연합, 미국을 견제하고 CIS 국가에게 자국이 역내 패권국가임을 확신시키고자 하였다. 앞으로 이 지역의 헤게모니 장악을 원하는 러시아는 이제 미국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발언할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냉전 시대의 영광 재연을 꿈꾸고 있는 러시아와 이를 경계하는 미국과 충돌 없는 싸움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번 전쟁을 통하여 러시아가 카프카즈 지역에 미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으로 자국민보호라는 명목으로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 분쟁 가능성은 상존해 있으며, CIS 연합이라도 러시아의 이익을 배려하지 않으면 가차 없는 조치를 취하리라 본다.

2. 최근 분쟁의 결과

러시아와 그루지야가 프랑스가 제시한 평화중재안에 합의했다. 러시아·프랑스·그루지야 3국이 합의한 새 평화안은 6개 항으로 구성되었다.⁷⁾ 하지만 새 평화안에는 분쟁의 씨앗이 된 그루지야 내 자치공화국인 남오세티아와 압하지야의 장래 문제가 빠져 있었다. 또한 두 지역에서 러시아계 주민 보호를 이유로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 평화유지군의 처리 방안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미 1994년에 남오세티아와 압하지야는 그루지야와 각각 독립 전쟁 후 두 곳에 유엔과 러시아 평화유지군이 주둔하는 내용의 휴전협정을 모스크바에서 체결하였다. 그러나 2008년 그루지야는 휴전협정 중단 선언을 하였다. 이는 그루지야가 군사적 행동을 재개하겠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러시아가 남오세티아와 압하지야의 독립을 인정한 데 따른 상징적 보복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이번 분쟁으로 발생한 피해, 난민 문제, 독립 지위 승인 문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분쟁의 피해로는 남오세티아 살상자는 5천 명이상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연방 남오세티아위원회는 비극적인 현장에서 유럽 인권 재판소 및 기타 국제기구에 보내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위원회에 따르면 남오세티아 침략 당시 1,694명이 사망하였으며, 총격의 결과로 츠힌발리의 주택 80% 정도가 파괴되었다고 발표하였다(*Вести* 1 октября, 2008). 그리고 다른 조사에서는 오세티아 민족에 대해 학살을 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러시아 법에 따르면, 대량 학살의 범죄는 희생자의 숫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 집단의 살상 행동 여부에 있다고 본다. 러시아는 그루지야가 오세티아 인구 거주지역과 민간인 살상 목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마을의 파괴

7) 러시아와 프랑스 간에 남오세티아 상황에 대해 8월12일에 그루지야에서 갈등을 정상화하는 6개 원칙에 동의하였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며, 인도적인 지원의 자유로운 통로 보장, 그루지야군 원주둔지 복귀, 러시아군 전쟁이전 경계로 철수, 이에 대해 러시아 평화유지군의 국제적 메커니즘이 조성될 때까지 안전의 추가대책을 구축한다. 남오세티아와 압하지야의 미래의 지위문제에 국제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한다(*IJA REGNUM* 12 Августа, 2008).

에 다발 로켓 발사기를 사용한 충분한 근거를 발견하였다고 주장하였다(*Правда* 13 октября, 2008).

하지만 그루지야가 먼저 인종청소 혐의로 러시아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였다. 그루지야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남오세티아인 민병대가 남오세티아주에 사는 그루지야인들에 대한 인종 청소를 자행했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이번 분쟁으로 발생한 난민문제이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은 이번 전쟁으로 7만 5천여 명의 남오세티아 인구 중 3만-4만 명을 포함해 모두 10만 명의 전쟁 난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기구는 여러 인종이 사는 남오세티아의 오세티아인들은 그루지야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북쪽(러시아)으로 이동했고, 오세티아 민병대는 그루지야인들을 남쪽(그루지야)으로 쫓아냈다고 하며 러시아와 그루지야 양쪽에 책임을 물었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이주센터는 그루지야 시민 수백 명이 아제르바이잔으로 러시아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으며, 그들은 그 후 영구적인 거주 장소로 러시아를 원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dni.ru* 24 сентября, 2008).

그루지야에 살고 있는 러시아인들이 압하지야에서 러시아 시민권을 요구하였다(*Вести* 8 октября, 2008). 또한 얼마 전 그루지야 지역에 살고 있는 14명의 러시아인들이 크라스나다르스크 지역의 러시아 관계기관에 국적 신청을 호소하였다. 러시아인 그루지야 주민들은 박해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살고 있는 곳을 부득이하게 떠나야만 할 처지에 처하게 되었다. 그루지야에서는 러시아인들의 재산 처분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그들의 집을 버리고 그루지야 영토를 떠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이들은 러시아 연방이주센터에 러시아 시민권 요구를 호소하였다.

셋째, 남오세티아와 압하지야의 독립 지위 승인 문제이다. 러시아는 두 자치공화국 내 러시아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03년부터 압하지야에 러시아 여권을 발급해 주기 시작하여, 지역주민(실제 압하지야 여권 7만 2천 명, 현재 압하지야 주민의 절반 이하)의 80% 이상이 받았다. 남오세티아 주민 상당수도 러시아 여권 소지자들이었다. 러시아와 압하지야는 이 중국정 협정을 준비하였다. 압하지야 여권은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Вести* 17 октября, 2008).

또한 지금까지 러시아가 대부분의 주민들의 사회적 혜택에 대한 재정 지원 상당부분을 지불하였다. 2007년 러시아는 연금의 형태로 지역의 2만 5천명의 퇴직자에게 5억 9천 만 루블을 지불하였다. 러시아인이 96%인 남오세티아에는 1억 루블, 몰다비아의 프리드네스트로비에는 6억 4천 만 루블이 할당되었으며, 이 돈의 일부는 연금으로 지불되었다. 당시만 해도 서방측은 푸틴 정부가 수천 명에 달하는 타국민에게 이런 조치를 취하는데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 조치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어떻든 간에 러시아는 이로써 그루지야 침공 시 외국 공격을 당하는 자국민을 보호하러 군대를 파견 한다는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러시아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2008년 8월26일에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아의 독립을 승인 하였다.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아 의회는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하였으며, 이 공화국의 주민들이 그루지야가 남오세티아 군사작전을 실시한 8월 12일 사건 후 독립 승인에 대한 요청을 하였다. 하지만 압하지야는 러시아 연방에 합병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ИТАР-ТАСС* 28 Августа, 2008).

그들은 헌법과 국민투표의 결과에 그들의 지위는 정해져 있다고 주장하였다.

러시아는 9월 9일에 남오세티아, 압하지야와 외교관계를 확립하고(*РИА Новости* 23 октября, 2008), 9월17일에 이들과 상호우호 원조 조약을 체결하였다. 러시아는 군사 협력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이번 조약을 근거로 남오세티아와 압하지야에 각각 3천 8백 명의 병력을 장기 주둔시키고 있다. 조약은 상대국 영토 안에 군사기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기하였다.

러시아는 압하지야에 러시아 군대가 버렸던 군사 기지 구다우트를 복구할 예정이다. 러시아는 남오세티아와 압하지야에 새로운 군사기지 조성에 200억 루블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러시아는 모스크바에 압하지야 대사관 건설 계획을 발표하였다(*Аргументы и факт* 16 октября, 2008).

남오세티아와 압하지야의 안전보장 확보가 러시아에 극히 중요한 과제이며 조약이 카프카즈 지역의 평화와 안정 회복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러시아는 또다시 그루지야의 남오세티아와 압하지야에 대한 어떤 무력행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군사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명하였다.

러시아 하원은 독립 승인이 압하지야에 러시아의 투자를 합법화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newsru* 9 сентября, 2008). 러시아는 압하지야의 관광 인프라와 농업 생산 발전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며, 2014년 소치의 올림픽 준비를 위한 압하지야의 잠재력을 이용할 예정이다. 그리고 러시아는 전쟁으로 황폐해진 남오세티아에 4억 2천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IV. 러시아와 국제관계

1. 러시아-미국

미국이 그루지야에 관심을 갖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루지야가 흑해와 카스피해 그리고 이란을 비롯한 이슬람 세계 그리고 위로는 러시아와의 다리역할을 하는 전략적 입지 때문이다. 미국은 글로벌 헤게모니의 전제조건이 유라시아 지배라고 이해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것은 미국의 이 지역에 대한 정책이 9.11사태이후 크게 변화하였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또한 미국은 안보와 반테러를 명분으로 이 지역에 개입하여 아제르바이잔과 그루지야 모두와 안보협력을 하고 있다(강봉구 2005. 9). 반면에 키르기스스탄 외무부는 2009년 2월 미국에게 아프가니스탄 병참 기지로 활용해온 마나스 미 공군기지를 폐쇄하라는 통지서를 전달했으며, 타지키스탄 두산베 공군 기지, 우즈베키스탄 하나바드 공군 숙영지에서 미군은 이미 병력을 철수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미국은 그루지야의 영토 보전에 대한 지지가 확고하였다. 이번 분쟁에서도 그루지야군이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남오세티아 침공을 감행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는 점이다. 러시아군의 공세가 시작하자 미국은 이라크 주둔 그루지야군 전원을 8월10일과 11일 단 이틀 만에 자국군 수송기를 이용해 그루지야로 돌려보내는 기민함을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미국은 2014 러시아 소치 올림픽에서 러시아의 개최 거부에 대한 움직임을 보였다. 미 의회에서는 국제 올림픽위원회 (IOC)에 러시아 올림픽 개최 거부 결의안 초안을 발표하였다. 10명의 미국 하원 의원들은 국제 올림픽위원회가 2014년 동계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한 새로운 장소를 찾아야 한다는 미 의회의 결의안까지 내었다(*Мир, власть* 19 сентября, 2008). 2014년 동계 올림픽개최는 전쟁지역으로부터 20마일도 되지 않으며, 특히 주최자가 이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재정적인 문제도 불안하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존 매케인은 러시아가 똑같은 행위를 계속한다면, 러시아를 G-8에서 제외하자고 요구하였다(*dni.ru* 15 Августа, 2008).

미국은 2008년에 계획되었던 러시아와의 합동 군사 훈련을 취소하였으며, 러시아-NATO위원회의 적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미군 해군 구축함 메이슨(Mason)에서 그루지야 연안 경비대원들이 10월4-10일까지 흑해 해상 훈련을 진행하였다(*РИА Новости* 4 октября, 2008).

러시아는 흑해에서 NATO 군함의 존재가 지역 안보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으며, NATO가 1936년 7월 20일 해협 법에 대한 몽트뢰협약(Конвенцию Монтре) 이라고 부르는 것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 협약은 다르다넬(Дарданеллы)과 보스포르(Босфор) 해협의 상선과 군함의 존재를 지배하는 법으로, 협약 18조 2항에는 흑해에 있는 선박의 수와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흑해에 어떤 목적으로든 상선이 아닌 군함은 21일 이상은 거기에 머무를 수 없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비공식적으로 아버지 부시 미국 대통령을 기리는 의미에서 '부시 다리'라고 명명하고 있는 가금류의 공급에 제한을 하기로 하였다. 푸틴은 19개 미국 업체들의 제품이 러시아로 수출이 거부될 것이라고 하였다. 2007년 미국의 수출위원회에 의하면, 미국의 가금류 고기와 계란의 러시아 수출액은 약 7억 4천만 달러가 된다고 발표하였다(*dni.ru* 29 Августа, 2008).

오히려 미국은 이미 그루지야 정부에게 수십 억 달러 지원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미국 원조의 주요 목표는 그루지야에 대한 주권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그루지야에 필요하다면 국방 지원까지 하겠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러시아와 미국은 서로 공동의 미래에서 대립이 있겠지만 경쟁과 협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이제 미국은 러시아와 같이 북극과 우주, 테러와의 전쟁과 핵무기의 비확산 문제에 있어서 협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러시아-유럽연합

90년 초 유럽에서의 냉전 종식은 유럽의 안보질서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고,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수립과 더불어 유럽안보의 한 축을 유럽연합이 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러시아의 대 유럽 정책의 주요한 목표는 안정된, 어떠한 나라도 차별되지 않는 보편적인 유럽 안전보장제도의 구축을 꾀하는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의 대 유럽정책으로 보이는 기본방침의 하나는 유럽 각국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2000년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다극화세계 속에

서 독립적인 하나의 축을 구성하며 러시아와 유럽연합의 양자 간 협력과 동반자관계를 확립하는 협력문제 등을 전방하였다.

그러나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유럽연합 안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정책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올드 유럽(Old Europe)이라 할 서유럽 국가들과 ‘뉴 유럽’(New Europe) 격인 중·동부 유럽 국가들 간에 균열이 심하였다. 발트 3국, 폴란드, 슬로베니아는 유럽연합과 결속해서 러시아에 엄격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 핵심국들의 생각은 달랐다. 유럽연합 외무장관 회담에서 이들 국가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러시아를 고립시켜선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탈리아도 반러시아 정책은 유럽연합의 이익을 해친다고 보고 있으며, 독일도 냉전시대와 같은 고립정책을 바라지 않는다고 지나친 반러 정서 확산을 경계하였다. 이들 서유럽 국가들은 어느 한 쪽을 편들기보다는 평화적 중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한국일보 2008년 8월 16일).

이번 전쟁에서도 유럽위원회는 남오세티아에서 그루지야의 공격 사실을 인정하였다(*Аргументы и факты* 30 сентября, 2008). 그러나 유럽연합은 러시아가 그루지야와의 관계에서 힘의 의한 정책은 용인할 수 없으며 남오세티아와 압하지야 독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РИА Новости* 5 ноября, 2008). 그리고 러시아가 제기한 그루지야-오세티아 분쟁 지역에서 사카쉬빌리의 남오세티아 국민의 대량학살 행위는 유럽연합의회 대표단에 의해 인정받지 못하였다(*Правда* 1 октября, 2008). 권고위원회는 쌍방에게 특히 난민의 권리 보장과 안전을 권고하고 이들의 권리에 대한 관심을 요구하였다(*РИА Новости* 30 сентября, 2008).

유럽위원회 대표는 러시아군이 약속한 대로 남오세티아와 압하지야의 인접한 완충 지대에서 철수하였기에, 유럽연합은 러시아와 협상재개를 하였다. 그리고 유럽연합은 러시아가 WTO에 가입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 러시아도 유럽연합과 경제적인 측면의 대화를 최대한 확대하려고 노력하였다(*dni.ru* 20 сентября, 2008).

더불어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는 카프카즈 위기는 유럽연합에 매우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유럽은 공평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주저 없이 평화를 복원하기 위해 이념을 넘어야 하며, 유럽은 자제를 잃어서는 안 되고 신 냉전의 공범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오늘날 세계는 러시아와 유럽 관계에서 위기가 필요하지 않으며, 대립의 조건을 만드는 것은 무책임하며 아무에게도 관심이 없음을 강조하였다(*dni.ru* 21 октября, 2008).

3. 러시아-NATO

미국과 유럽이 NATO 확대의 국면에 있어 맞이고 있는 가장 크고 어려운 정치적 도전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일 것이다. 동유럽으로 NATO의 확대 후, 러시아는 그루지야에서 정치적 군사적 힘을 보여주었다. 1999년부터 NATO회원이 1/3이상이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은 계속되고 있다. 2004년 이스탄불에서 열린 NATO 정상 회담에서 카스피해와 카프카즈의 안전 보장에 대해 발표하였다. 그 후 부쿠레슈티의 NATO 정상 회담에서 그루지야와 우크라이나

가 NATO의 회원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번 분쟁으로 그루지야가 NATO회원국이 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dni.ru 30 Августа, 2008).

NATO가 그루지야의 영토보전의 원칙과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아 안전에 대한 확실한 보장, 그리고 비승인된 공화국의 지위변경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NATO는 동맹의 가치 있는 파트너로 그루지야를 지지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 러시아와 NATO의 관계는 거의 단절 상태가 되었다. NATO-러시아의 업무는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모든 NATO 회원국들은 러시아가 국제법과 국제 경기의 규칙을 위반한 데 동의하였다. 러시아는 NATO를 비난하였지만, 러시아를 통해 아프가니스탄에 군사 물자의 수송에 대한 계약의 거부 등 NATO에 매우 민감한 타격을 끼칠 수 있는 가능한 보복 조치의 발걸음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루지야가 NATO에 가입한다면 러시아는 NATO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준비가 되어 있다(ИТАР-ТАСС 8 сентября, 2008). 8월 NATO 구성원에 해당되는 26개국 외무 장관들은 러시아의 그루지야에 대한 무력의 과도한 사용을 비난하며 러시아-NATO 이사회의 작업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러시아는 NATO와의 공동 프로그램을 중지시켰으며, 러시아는 일시적으로 평화 유지군의 범위와 평화를 위한 파트너십 프로그램에서 협력을 포기하였다. 러시아와 NATO의 모든 합동 군사 훈련은 취소되었다. 서방 국가의 전함은 러시아 항구로 입항이 금지하였다. 하지만 러시아와 NATO와의 부분적인 협력은 유지되었다. 러시아-NATO는 영공에서 재래식 무기의 움직임에 대해 통제 업무를 계속하였다.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NATO와 상호활동은 중지하지 않았다.

미국 부통령은 그루지야의 NATO 가입을 보증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그리고 NATO-우크라이나 위원회를 모델로 하여 NATO의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며, NATO는 그루지야와 협력은 하되 무기 공급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phoenixnews.ru 11 сентября, 2008). 그러나 독일외무부 장관 에를러(Gernot Erler)는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야는 아직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NATO가 요구하는 높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경우는 나토 가입에 국민들의 지지가 없는 상황이며, 그루지야의 경우는 영토 분쟁과 이웃과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NATO가입을 할 수 없다고 견해를 표명하였다(dni.ru 21 октября, 2008).

러시아는 원칙적으로 NATO의 새로운 회원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gazeta.ru 20 сентября, 2008).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다수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기본적인 민주적인 절차에 반하여 NATO 가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4. 러시아-CIS

신생 러시아가 탄생한 직후 긴급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최대의 외교적인 과제는 CIS와의 관계를 여하히 발전시키느냐에 달려 있었다. 러시아 선택의 길은 CIS 통합과정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 전단계로서 CIS 가맹 각국과의 2국 간 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이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유라시아 정치경제 안보질서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에 러시아의 민감성은 지대하다. 가까운 장래에 우크라이나를 NATO에 가입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러시아의 불안감을 증대시켜서 우크라이나를 독립국가연합 방위동맹에 결합시키려는 러시아의 압력이 증대될 것이다(데이비드 고펜트스티븐 라라비 2000, 242-247).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는 이번 러시아-그루지야 분쟁으로 매우 첨예화되었다. 우크라이나는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아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가 그루지야 영토 보전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영토를 무력 병합하였다고 주장하였다(РІА Новости 24 сентября, 2008). 유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해군이나 공군이 우크라이나의 영해나 영공을 통과하려면 적어도 72시간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으며, 우크라이나는 그루지야에 불법으로 무기판매를 하였다. 우크라이나는 그루지야에게 남오세티아를 침략하기 전에 무기를 공급했다는 사실이 우크라이나 의회 조사 위원회가 밝혀냈다(РІА Новости 26 сентября, 2008).

이즈베스티야는 9월10일에 그루지야가 츠хин발리를 공격할 때 우크라이나에서 구입된 무기로 러시아 항공기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하였다. 의회 특별위원회는 지난 10년 동안 트빌리시에 공급한 장비의 전체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 문서에는 사카쉬빌리가 그루지야 권력을 잡은 2004년 후에 군사-기술 협력을 활성화하였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과거에는 우크라이나가 그루지야에 권총, 소총과 훈련 항공기를 공급하였지만, 2004-2005년에는 탱크, 헬기와 대포 시스템 등 보다 공격적인 무기를 판매하였다. 10월 1일 티모셴코 총리는 이번 무기거래는 불법이며 우크라이나 정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였다. 모든 무기 거래는 대통령과 국가 안보 및 국방위원회의 직접 통제 하에 있었으며 정부는 사실상 이 활동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였다(Известия 7 октября, 2008).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우크라이나가 그루지야에 무기를 공급하는 주요 국가라고 인정하였다. 사실 우크라이나는 그루지야가 남오세티아의 군사 활동에서 사용된 무기 공급업체의 목록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 명단에는 체코, 불가리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폴란드, 리투아니아, 이스라엘, 미국, 터키, 프랑스 등도 포함되었다(Известия 1 октября,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우호 협력과 파트너십에 대한 조약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러시아는 최근까지 우크라이나가 비우호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조약의 연장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Правда 24 сентября, 2008).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흑해 함대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하려고 하였다. 이에 크림지역의 러시아성향의 단체는 러시아의 우호조약 대신 크림과 세바스토폴의 지위에 대한 우크라이나 문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러시아 해군 항공모함 건설을 위해 우크라이나에게 제안하였다. 그리고 러시아는 2017년 이후 러시아 흑해 함대가 세바스토폴에 남아 있도록 상호 호혜적 제안을 우크라이나에 하였다. 러시아 유일의 해군 항공모함 '제독 쿠즈네초프'는 우크라이나 니콜라예프스키 조선 공장에서 건조되었다(РІА Новости 24 сентября, 2008).

한편, 러시아-그루지야의 분쟁으로 그루지야는 8월 30일부터 모든 검문소에서 러시아 시민들에게 그루지야 비자 발급을 중단하였다(*dni.ru* 30 Августа, 2008). 지금까지 러시아인은 트빌리시 공항에서 20달러를 지불하면 그루지야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루지야는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아 독립 승인으로 러시아와 외교관계를 단절하였다. 따라서 러시아 외교관들은 트빌리시에서 대사관을 닫고 모스크바로 철수하였다(*Вести* 30 сентября, 2008).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8월 26일에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아의 독립을 인정한 후에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많은 민족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직 승인되지 않은 프리드네스트로비에와 나고르노-카라바흐도 수후미와 츠헨발리를 인정하였다(*vz.ru* 5 сентября, 2008). 수후미와 츠헨발리에 대한 러시아의 결정에 대해 같은 동맹인 벨라루스는 공개적으로 지지하였다. 아르메니아는 아마도 승인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레반은 나고르노-카라바흐보다 수후미와 츠헨발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하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크림은 그루지야-오세티아 분쟁에서 러시아에 의한 남오세티아와 압하지야 독립 승인을 환영하였다(*dni.ru* 29 Августа, 2008).

유럽연합은 카자흐스탄이 남오세티아와 압하지야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9월 5일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집단 안보 조약기구(ОДКБ)리더들이 모인 곳에서 남오세티아에 대한 그루지야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러시아 행동에 대해서 지지하였다. 이 기구의 러시아 파트너들(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아 독립의 인정 문제는 국제법에 근거하기로 결정 하였고 국가 이익에 따르기로 하였다.

V. 결 론

지금까지 카프카즈 위기를 통해 신거대게임 측면에서 러시아-미국, 러시아-유럽연합, 러시아-NATO, 러시아-CIS의 국제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번 러시아-그루지야 분쟁을 통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극체제는 다극체제로의 새로운 국제질서의 변화 가능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나큰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21세기가 시작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변화와 기대, 그리고 새로운 세계안보체제가 요청되고 있다. 미국 안보 분석가들에 의하면 미래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추세 속에서 미국을 단일한 패권이나 지도자로 상정하는 단극체제에 러시아와 중국은 반대하고 있다. 러시아의 새로운 군사전략 독트린은 러시아에 대한 주요 외부 위협을 지적하며 러시아의 국제안보문제 해결 노력과 다극적 세계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보유하는 러시아의 위치를 무시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아의 독립 승인 이후 공표한 러시아의 대외 5 원칙은 그 시사점이 많아 보인다.⁸⁾

8) 러시아의 대외 5 원칙은 첫째, 러시아는 문명화된 민족 간의 관계에서 국제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 원칙을 우선 인정한다. 이러한 원칙 아래 국제법의 개념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다. 둘째, 세계는 다극화되어야 한다. 단극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지배는 용납될 수 없다. 러시아는 모든 결정이

이런 측면에서 러시아는 유라시아에서의 안보체제는 협력과 상호인정이 세력균형의 정치와 연결된 상호억제의 논리를 대체해야 한다는 보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사회가 겪고 있는 안보위기는 총체적이고 다중적인 것이어서 심각하다. 러시아가 안정되지 못하면 그것은 러시아 자신의 안보뿐만 아니라 전 유럽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현존하는 미국 주도의 NATO의 안보 구조는 최근의 사건을 포함하여 여러 침략에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러시아는 일극체제에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포괄적인 안보체제를 제안하였다.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2008년 6월5일 베를린에서 유럽-대서양 안보조약기구 창설을 제안한 바 있다. 범유럽 정상회의가 안보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고찰과 함께 헬싱키-2 조약 같은 새 유럽안보협정을 추진하자는 것이었다. 헬싱키 조약은 지난 75년 옛 소련과 서방 진영 간 긴장을 완화할 목적으로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이 서명한 가운데 체결되었다. 이 작업은 유럽-대서양 지역의 전략적 균형 회복을 위해 이 지역의 모든 국가와 기구들을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NATO와 유럽안보협력기구, 유럽연합뿐 아니라 구소련 지역 국가 모두를 포함하는 기구이다.

러시아는 새 안보조약이 모든 국가에 동등한 안전보장을 약속하는 신뢰할 만한 집단체제의 구축이며, 그것은 국제법의 근본원리를 확인하는 범위에서 무력의 불사용과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갈등의 정상화, 주권, 영토 보전, 내부 간섭과 다른 안전의 강화를 허용하지 않음을 재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조약은 유기적으로 유엔 현장의 법적 범위에서 집단 안보의 원칙을 고려하여 만들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이 서방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미국은 더 넓은 유럽과 확대된 NATO는 장·단기적 미국 정책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NATO의 존재가 자신의 안보에 엄연한 현실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냉전 체제의 해체와 더불어 미국의 새로운 목표는 지나치게 일차원적으로 이루어졌다. 더불어 NATO는 적대세력이 사라진 상황에서 스스로 새로운 유라시아 안보의 틀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러시아는 새로운 지정학적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러시아의 지정학적 해결책은 중국, 이란, 이슬람국가도 아니다. 러시아의 유일한 지정전략적은 구소련의 영역 내에서 정치·경제적으로 새로운 통합구조를 창출하고, 유럽연합과 NATO를 확대한 범대서양적 유럽인 것이다. 이것이 러시아에서 현실적인 국제적 역할을 부여해 줄 수 있고, 러시아의 대내개혁과 사회근대화의 기회

오늘날의 미국처럼 한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세계를 불안정하게 하며 갈등에 의해 위협이 된다. 셋째, 러시아는 어느 나라와도 대립을 원하지 않는다. 러시아는 고립을 의도하지 않는다. 우리는 가능한 범위에서 유럽과 미국과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전개시킬 것이다. 넷째, 가장 우선순위는 그 어디에 있던지 러시아 국민의 생명과 존엄성 보호에 있다. 우리의 외교 정책은 이것을 구현할 것이다. 우리는 해외에서 우리 기업 공동체의 이익을 보호한다. 그리고 침략을 하는 모든 사람은 응징을 받게 될 것이다. 다섯째, 지역의 우호는 러시아의 관심사이다. 세계의 다른 나라처럼 러시아는 특별히 이익을 가진 지역이 있다. 이들 지역은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선린관계와 역사적인 특별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국가와 우리들의 가까운 이웃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이들 지역에서 매우 조심스레 일하고 있으며, 이는 단지 경계 국가에 해당되는 것만은 아니다(IITA P-TACC 31 Августа, 2008).

를 극대화 시켜 줄 수 있는 옵션인 셈이다.

따라서 러시아-그루지야 분쟁을 통해 볼 때,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역할은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중지하고 유라시아의 지정학적 다원성을 공고히 하여, 범유라시아 안보체제에 대한 가능성을 창조하는데 있다. 이것은 러시아의 정체성인 유라시아주의와 일맥상통하고 있으며, 이렇게 될 때 러시아가 민족통합과 지역통합의 러시아 문제를 해결하고 비로소 세계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봉구(2005). “상하이협력기구와 뉴 그레이트 게임.” *Asia-Pacific Review*.
- 고재남(2005). “유라시아 중부지역의 ‘신 거대 게임’과 관련국 대응.” 『중소연구』, 제 29집, 3호.
- 고재남(2004). “트랜스 카프카즈중앙아시아의 신거대게임과 러시아의 대응.” 『외교안보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 데이비드 고펜트스티븐 라라비(2000). 『미국과 유럽의 21세기 국제질서』. 서울: 한울아카데미.
- 엄구호(2007). “남카프카즈의 신거대게임과 그루지야의 친서구 정체성.” 『중소연구』, 통권 113호.
- 유현석(2006). 『국제정세의 이해』. 서울: 한울아카데미.
- 『한국일보』. 2008년 8월 16일.
- “Абхазия восстановит российские военные базы.” *Аргументы и факты*, 16 октября, 2008.
- “Абхазия не хочет присоединяться к России.” *ИТАР-ТАСС*, 28 Августа, 2008.
- “Америка призвала МОК не проводить Олимпиаду-2014 в Сочи.” *Рубрики: Мир*, власть, 19 сентября, 2008.
- “В поисках третьего Эксперты строят прогнозы – кто еще признает независимость Абхазии и Южной Осетии.” *vz.ru*, 5 сентября, 2008.
- “Глава МВД Грузии лжет, что Тбилиси не готовился к вой не-Медоев.” *РИА Новости*, 23 октября, 2008.
- “главы МИДов не стали напрямую обещать Тбилиси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ПДЧ уже в декабре.” *postsoviet.ru*, 21 Августа, 2008.
- “Госдеп США: Россия слишком слаба для ведения холодной войны.” *Интерфа*

кс, 22 сентября, 2008.

“Группа граждан из Грузии собирается попросить российское гражданство в Абхазии.” *Вести*, 8 октября, 2008.

“Грузины массово мигрируют в Россию.” *dni.ru*, 24 сентября, 2008.

“Грузию технически исключили из состава СНГ.” *Известия*, 9 октября, 2008.

“Грузия ужесточила въезд россиянам.” *dni.ru*, 30 Августа, 2008.

“Депутаты Думы считают, что признание независимости легализует российские инвестиции в Абхазию.” *newsru*, 9 сентября, 2008.

“Еврокомиссия признала факт нападения Грузии на Южную Осетию.” *Аргументы и факты*, 30 сентября, 2008.

“Евросоюз поставил России условие.” *dni.ru*, 19 сентября, 2008.

“ЕС не признает независимость Южной Осетии и Абхазии-Солана.” *РИА Новости*, 5 ноября, 2008.

“Комиссар Совета Европы по правам человека считает ситуацию в зоне грузино-осетинского конфликта гуманитарной катастрофой.” ИА REGNUM, 12 Августа, 2008.

“Любить по-украински.” Новые *Известия*, 10 октября, 2008.

“НАТО готовят ловушку Постпред России при НАТО предупредил о возможных провокациях Грузии против делегации альянса.” *phoenixnews.ru*, 15 сентября, 2008.

“НАТО ставит России блок/Москва и Брюссель чуть было не разорвали отношения.” *Коммерсантъ*, 20 Августа, 2008.

“НАТО отказалось от Грузии и Украины.” *dni.ru*, 21 октября, 2008.

“НАТО поставлен грузинский ультиматум.” *ИТАР-ТАСС*, 8 сентября, 2008.

“Новички в НАТО сороят Россию с Европой.” *dni.ru*, 20 сентября, 2008.

“Общественная палата РФ собрала материалы о грузинском варварстве в Цхинвали.” *Вести*, 1 октября, 2008.

“ОБСЕ признала Украину основным поставщиком оружия в Грузию.” *Известия*, 1 октября, 2008.

“ПАСЕ угрожает России за спасение осетин.” *Правда*, 1 октября, 2008.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парламенту.” *РИА Новости*, 5 ноября, 2008.

“Президент Ющенко продавал оружие Грузии, снимая его с боевого дежурства.” *Известия*, 7 октября, 2008.

“Путин: Дай те достроить трубу, прекратите базар.” *Правда*, 11 сентября, 2008.

“Путин нанес удар по ножкам Буша.” *dni.ru*, 29 Августа, 2008.

“Путин удивился Западу.” *ИТАР-ТАСС*, 11 сентября, 2008.

- “Путин устроил политический бильярд.” *dni.ru*, 20 сентября, 2008.
- “Пять принципов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и.” *ИТАР-ТАСС*, 31 Августа, 2008.
- “России нужна новая ядерная доктрина.” *rosbalt.ru*, 2 Август, 2007.
- “Российские дипломаты покидают Грузию.” *Вести*, 30 сентября, 2008.
- “Россия и Абхазия готовят соглашение о двойном гражданстве.” *Вести*, 17 октября, 2008.
- “Россия может помешать расширению НАТО.” *dni.ru*, 30 Августа, 2008.
- “Россия предложит Украине строить авианосцы.” *РИА Новости*, 24 сентября, 2008.
- “Россия продлит договор о дружбе с Украиной?” *Правда*, 24 сентября, 2008.
- “Саркози рассказал о роли России в мире.” *dni.ru*, 21 октября, 2008.
- “СКП: Жертвами грузино-осетинского конфликта признаны более 5 тысяч человек.” *Правда*, 3 октября, 2008.
- “Сотрудники береговой охраны Грузии пройдут обучение на эсминце США.” *РИА Новости*, 4 октября, 2008.
- “США в сентябре готовят удар по Сочи.” *dni.ru*, 15 Августа, 2008.
- “США нуждаются в русских.” *utro.ru*, 21 сентября, 2008.
- “Украина не признает независимость Абхазии и Южной Осетии— Ющенко.” *РИА А Новости*, 24 сентября, 2008.
- “Украина продает оружие незаконных основаниях— глава Минобороны.” *РИА Новости*, 26 сентября, 2008.
- “Швеция просит Россию и Грузию соблюдать права беженцев.” *РИА Новости*, 30 сентября, 2008.
- “Ющенко временно отдал Крым грузинам.” *dni.ru*, 29 Августа, 2008.

<http://www.rg.ru>. (2008년 8월 30일 검색).

<http://ru.wikipedia.org/wiki/>. (2008년 8월 30일 검색).

Abstract

Russia-Georgia conflict and international relations

Young-Sool Kim*

This article is a study on the Russia-Georgia conflict that took place during 2008 and how it changed the international relations. The Russia-Georgia conflict has changed the balance of power and the geopolitical situation in Eurasia.

This article examines the causes, history, and the results of Russia-Georgia conflict and reviews Eurasia as a place of the 'New Great Gam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where it is trying to regain influence and Russia.

Eurasia has been the center of world power and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left the United States in a unique position. Through the Russia-George conflict, the United States exerts dominance and influence over Eurasia and for global hegemony.

The Russia-Georgia conflict shows us that a new global security system is required for the regions of Eurasia. One of the possibilities of a new global security system is a trans-Eurasian security system. Russia's role in this region is to enhance the stability of Eurasia's geopolitical pluralism, precluding the appearance of a single dominant power.

■ 논문접수일 : 2009년 09월 19일, 논문심사일 : 2009년 10월 19일, 게재확정일 : 2009년 11월 20일

* Research Professor, Eurasian Research Center, Chonnam National University